



#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5년 봄 | 9호

특집 연적 | 박물관탐방 다양한 유물을 소장한 松巖미술관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돌의 미학-석굴암

전시실 산책 다시 顧菴을 생각한다 | 유물사랑 다시 찾은 線 | 기증유물 윤여덕 선생 기증 고문서

답사를 다녀와서 정림사탑이 준 여유 | 특설강좌를 다니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박물관

학술발표요지 6~7세기 동아시아 조각양식의 전파와 공유

새국립중앙박물관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어지기까지

한국박물관회는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 春雪

정지용 (1903 - ?)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로 이층,

새삼스레 눈이 덮힌 뿔뿌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 하다.

어름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긋롭어라.

용승거리고 살어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짓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전 철아닌 눈에  
햇옷 벗고 도로 칩고 싶어라.



## 硯滴 - 그 고아한 자태

儒學을 숭상하던 우리 선비들은 글과 글씨를 통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인격의 수양을 얻으려 했다. 규방과 엄격히 분리된 사랑방은 修學의 터전이었으며 남성전용 공간이었다. 그곳은 책을 읽고 사색도 하며 바깥 세계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열려진 곳이었다. 그런 공간이기에 솜廊은 곧 주인의 취향과 풍류의 격을 드러낸다. 그런 것 중에 중요한 위상을 점하는 것이 문구와 서책이다. 그 문구 중에도 연적은 선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연적의 유래는 고대 중국의 水中丞과 水注에서 찾을 수 있다. 수중승이란 文房에서 쓰는 물을 떠놓는 그릇으로 일명 水盂라고 하는데 쥘과 唐代부터 일반화되었다. 수주는 이보다 약간 후에 만들기 시작했고 모양은 지금의 연적과 거의 같다.

明나라 屠隆의 『考槃餘事』에 보면 수중승은 陸子岡이 만든 옥제품이 있는데 짐승의 얼굴이나 蟲文이 조각되어 아주 좋은 기물로 친다.(중략) 이것은 殉葬때 썼던 것으로 옛사람들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몰랐으나 지금은 中丞으로 쓰니 아주 좋다. 주먹만한 호빵 모양의 발이 셋 달린 수반 형태다. 옥제에 이어서 銅製와 磁器로 발전한 것이라 했다.

그리고 또 수주는 구멍이 따로 하나 있는 것으로 옥제품 중에는 圓壺와 方壺가 있고 육자강의 작품으로 백옥 辟邪와 蟾蜍注[두꺼비모양연적]가 있으며 동제 도제에는 天雞, 天鹿, 犀牛와 瓜, 桃, 蓮房 등이 있어 정교하기 이를데 없다고 했다. 이로 보아 3세기 경에 중국에는 이미 연적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정교한 수법이 아름답게 묘사된 듯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연적이 사용되었는가. 흙을 빚어 만든 가야시대의 원형 陶硯이 있고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 토제벼루를 볼 때 삼국시대부터 함께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청자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象形 연적들이 발달

하였으며 표현이나 기법이 탁월하다. 그 중 12세기 전반기 작품인 오리 모양 연적(국보 74호)은 수법이 섬세하고 은은한 청자의 질감이 뛰어나다. 물을 머금은 오리의 사실적인 모습이 더 할 수 없이 예쁘고 연밥 문 입을 통하여 물을 토하게 한 것 또한 운치있다. 연적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조선시대에는 분청도 드물게 있기는 하나 거의가 백자연적이며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기이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연적은 두 개의 작은 구멍이 있어 한 곳은 물이 나오는 水口로, 다른 한 곳은 공기가 들어가는 空口의 역할을 한다. 보통은 손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여서 감싸쥐고 손가락 하나로 공기 구멍을 막았다 떼었다 하면서 필요한 양 만큼 물을 따를 수 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형식은 潛水式 연적으로 물 속에 몸체를 침수시켜 물을 채운 다음 수구쪽으로 기울여 쓴다. 크기는 지름이 3cm도 안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어린아이 머리만 큼 큰 것 까지 다양하다. 연적은 자기로 된 것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금·은·동제·철제·목제로 만든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청자오리형연적  
높이 8.0cm, 간송미술관 소장

연적의 형태는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方形이거나 꽃형, 부채형, 또아리형, 원형 등이 있다. 그 중 사각형이 가장 많은데 윗면 중앙에 공기 구멍을 두었고 한쪽 측면의 작은 구멍을 수구로 삼았다. 수구와 공기구멍 부분에 개구리 등이 조각되어 앙증맞은 모습으로 예술성을 더하였다. 또아리형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로 가운데가 뚫어진 고리모양이며 안정되고 간결한 형태이다. 이외에 동물·집·산·악기 등을 본뜬 상형 연적들도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부귀, 다

산, 풍요 등의 길상을 상징한다.

연적에 대하여 명나라 王圻의 『三才圖會』에 '研席중 진기한 물건이다. 거북이 기어가는 뱀을 등에 지고 있는 형태이다. 거북의 등에는 물을 담을 수 있고 둥근 구멍을 내고 입에는 물이 나오는 잔을 물게 한다. 거북과 뱀은 북방을 상징하는 짐승이며 북방은 물을 상징하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상형 연적중 동물 모양의 대부분은 물과 관련되어 있다. 튀어나온 눈으로 고개를 들고있는 두꺼비, 물고기, 거북, 해태, 용형 등 생동감있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서 금방 꿈틀거리며 물을 뿜을 듯한 자세다. 두꺼비 모양 연적은 姮娥의 전설이나 장수하는 영물로서 물과 관계가 깊어 옛부터 만들어 졌다. 李笠翁이 '장신공이 동으로 만든 옛 두꺼비 연적을 가지고 있다' 고 한 것으로 보아 7·8세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본다.

또한 상징형 연적에는 감, 꽃, 산, 복숭아형 등이 있다. 특히 복숭아모양 연적은 손안에 넣으면 매끄럽고 윤기서린 감촉이 느껴질듯한 탐스러운 형태로, 대부분 굽은 가지를 아래 위로 구부려 삼각형에 가까운 받침을 만들어 안정적이며 조화롭다. 복숭아 끝은 청화, 진사로 잎과 가지는 청화로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많다. 받침의 한 가지가 올라와 수구가 된 모습에서 그것을 빚어낸 도공의 예술감이 돋보인다.

산모양 연적은 실제 문방구로 보다는 오히려 사랑방의 장식용으로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며 다른 연적에 비해 규모도 크다. 집, 사람, 여러 동물 등이 산봉우리와 기암절벽 사이에 조각되어 있어 자연의 정취와 풍류를 즐기는 문인들의 사랑을 한껏 받았으리라.

주목할 것은 아무 색채도 가하지 않고 만든 순백자 연적으로, 특히 세워 놓은 형태가 젊은 여인의 희고 고운 무릎 같다는 무릎연적이다. 단정하게 꿇어 앉아 두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을 때의 감각이 살아 있고 부드러운 곡선이 보이는 순백의 세련미가 있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연적은 더욱 활발히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데 음·양각, 투각 등의 기법으로 멋을 한껏 내었다. 투각 연적의 제작법이 흥미를 끄는데 먼저 안에 넣을 용기를 만들고 몸체 바깥면과 이어지게 한 다음, 외형에 문양을 투각하여 형태를 완성했다. 세심한 손놀림과 아름다움에 절로 감탄하게 한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문양은 연적의 器面 전체를 꽉 채웠으나 점차 간결해지고



청화백자철화나비문팔각연적  
높이 6.5cm, 호림박물관 소장

여백이 나타난다.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성리학적인 세계는 무엇보다도 검소와 질박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도자 연적에도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담긴 문양이 반영되었다. 그들이 선호하여 유행한 것이 백자였다. 백자에 청화·철사·진사로 표면을 장식했다.

연적의 문양은 식물, 동물, 산수, 구름, 십장생문 등이 있다.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비유한 매죽문은 많이 애용된 소재이다. 호랑이, 거북, 운학, 운룡 등 상서로운 동물들을 나타내었고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박쥐, 부귀와 번영 학문적 명성을 의미하는 물고기 문양은 사실적 묘사에 역점을 두었다. 권자문은 길상을, 문자문은 福이나 뜻에 맞는 한 시들을 써넣었다. 자연이나 방향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 팔괘문도 있다

청화로 산수문을 그린 연적이 후기에 특히 많아 지는데 중국 소상 지방의 팔경을 모사한 듯한 소상팔경과 한강 유역의 풍경과 북한산 봉우리를 그려 넣은 것이 주류를 이룬다. 원경에는 산을, 중경에는 배와 바다를, 근경에는 나무·인물 등을 표현하였는데 한 폭의 회화라 아니할 수 없다. 주로 한강변의 분원에서 구워낸 것이다.



백자무릎형연적  
높이 11.4cm, 호림박물관 소장

‘조선은 연적의 나라라고 해도 좋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만들었지만 종류나 아름다움에서 조선시대의 연적을 능가할 수 없다. 그곳은 어느 누구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다.’

우리 연적을 극찬한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의 말이다. 연적은 작지만 품고있는 의미는 크다. 단순한 사물 이상의 철학이 들어있다. 형태와 문양은 자유롭고 독자적이며 지조와 품격이 있으며 그 하나하나엔 文氣가 서려있다. 묵향을 즐기는 선비들 곁을 단정한 자태로 지키면서 그들의 이상과 가치에 동참했으리라. 간결하고 단아함으로……. **M**희

## 매끄럽고 산뜻하여라

별다른 장식 없이 책과 서안으로 정갈하게 꾸며진 선비의 사랑방. 그 방의 벼루 옆에는 주인의 안목과 취향에 맞는 연적이 하나쯤은 자리하고 있어야 제격이다. 연적은 문방구일 뿐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이다. 다른 문구에 비해 마음에 맞는 색과 문양 또는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여, 선비의 手澤이 지워질 날 없어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분신이라 하겠다. 그것을 보고 필의를 느끼기도 하고 작품을 구상하기도 하는 물건이다. 연적에 담긴 물을 벼루에 따르고 먹을 갈면 어느새 방 안 가득 묵향이 퍼진다. 먹이 다 갈아질 즈음 되면 밖으로만 내닫던 마음도 안으로 찾아들어 자연스럽게 글을 쓸 준비가 된다. 마음의 먹도 다 갈렸다. 이제 붓을 들어 마음의



청화백자산수인물문사각연적  
높이 7.5cm, 덕원미술관 소장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된다.

연적의 물을 따라 먹을 간다는 것은 글씨를 쓰는 즐거움의 절반이다. 벼루에 먹을 갈아 흰 종이에 글을 써내려갈 때 선비의 정신은 드높은 세계에 도달한다. 옹고 그림을 냉철하게 따지는 글이나 사리를 분별하는 글에 몰두할 때, 그의 정신은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긴장되어 있으랴. 格物致知에 힘쓰는 조선의 선비들에게 문방구가 갖추어진 사랑방은 검은

빛과 흰 빛으로 이루어진 추상의 사유 공간이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잠시 숨을 돌려 옆에 있던 연적에 눈길을 주거나 쓰다듬을 여유가 없다면 생활은 한없이 무미건조했을 것이다. 추상과 사유의 공간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긴장

은 구상과 감각의 예술품인 연적이 풀어주기도 했다.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두꺼비나 개구리의 모양이건 혹은 매끈하고 어여쁜 무릎이나 복숭아 모양이건 간에 연적은 물을 담고 있으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상의 세계다. 잠시 연적의 물을 부어 다시 먹을 갈면서 선비는 글을 쓰는 동안 긴장되었던 생각을 내려놓고, 연적이 이끄는 자연 속으로 무장 해제된 채 들어간다.

자기로 된 연적의 촉감이란. 매끄러우면서도 산뜻하여 잡았을 때 안온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 그 중에서도 잘 익은 복숭아 모양으로 잎과 가지까지 소담스럽게 달린 것은 이를 아끼던 선비들이 글밖에 모르는 짝 막힌 선님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쾌락을 즐길 줄 아는 풍류인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복숭아가 수명장수나 어진 선비 또는 벽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

운 여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시경에 ‘싱싱한 복숭아 아름답기도 하여라 [桃之夭夭]’ 라고 한 것도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뽕족한 복숭아 끝이 辰砂로 붉게 채색된 소담스런 연적을 보며 ‘나의 침실로’의 첫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 오너라’ 복숭아는 그 꽃이 아름답다 못해 요염하기까지 해서 글 읽는 곳 가까이는 심지도 앓았다지만 한 손안에 꼭 들어오는 복숭아 연적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은근하게 형상화한다. 아마 연적의 주인은 분명 따뜻한 가슴에 사랑을 품고 楊柳詞를 지을 줄도 아는 풍부한 감성을 지녔을 것이다.

흙과 불이 만나 물을 담도록 만든 그릇, 연적. 그 안에는 공기가 통하도록 두 개의 구멍이 나있다. 그렇다면 연적은 바람까지 담는 그릇이 아닐까. 地水火風이 다 어우러져 있는 연적은 모양도 자연만큼이나 다양해서 나타내지 못한 모양이 없고 쓰지 않은 색이 없다. 청초한 푸른색과 화려한 붉은색을 비롯해서 갈색까



청자복숭아형연적  
높이 8.6cm, 개인 소장



지 사용하여 산부터 물까지, 하늘 아래에 없는 동물과 꽃이 없고 해태처럼 상상속의 동물들까지 형상화했다. 그래서인지 연적의 모양은 이래야한다는 격식이 없고 만든 이나 주문한 이의 자유로운 생각을 반영한다.


완상품 가운데도 서화는 바라볼 수만 있지만 저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연적은 다르다. 사람의 촉각이란 다른 감각과 달라서 정보의 양은 적으나 지속력은 가장 크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좋으면 만져보고 싶고 쓰다듬고 싶어진다. 만지면 그 기억이 영원토록 오래감으로. 박물관이나 전시장에서는 귀한 유물들을 만지지 못하게 진열장 안에 넣는다. 이는 모두 그 물건을 손끝으로 느껴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리라. 연적은 곁에 두고 만져볼 수 있어 오래 기억되며, 그래서 주인의 손길이 배고 체취가 짙게 남는다. 따라서 굳이 사랑방의 주인을 만나보지 않고도 어떤 연적이 놓여 있는가를 보면 그의 취향을 짐작할 수도 있다. 희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육면체의 백자 연적이 고결하고 티 없이 맑은 정신세계를 나타낸다면, 대통으로 만든 연적은 쓰는 이의 소박한 품성을 말해준다. 철

채와 동채가 뒤섞인 높은 산 모양의 연적에서 주인의 화려하고 호방한 취향이 느껴진다면, 한



백자동화국화문원통형연적  
높이 3.2cm, 개인 소장

떨기 난초가 피어있는 청화백자 연적은 그윽한 아취가 있다. 介潔한 선비의 곁에 있는 듯, 어디선가 맑은 향이 감도는 듯하다.

다시 연적의 물을 따른다. 졸졸 소리가 마치 봄에 새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닮았다. 먹과 물이 어울려서 다 풀어지듯이 생각도 글에 다 풀려야 비로소 완성되지 않던가. 모든 생명을 다 키워내는 물처럼 먹과 하나 된 물도 선비들의 생각을 풀어주고 예술적 정취를 어루만져주었다. 검은 색의 벼루와 먹 옆에 자리한 채 푸른 하늘빛을, 혹은 타는 붉은 빛을 머금은 연적들. 그들을 볼 때마다 다사로운 감성을 지녔던 그 주인들이 너무 그립다. 

## 다양한 유물을 소장한 松巖 미술관

경인 도로 끝에 다다르니 서해와 해안도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흰 물새 떼가 노니는 학익동 유수지 건너편에 송암 미술관이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松巖 李會林(현 동양제철화학 명예회장)선생이 평생 국내외에서 수집한 약 2만 여점의 고미술품을 송암 문화재단에 기증하면서 미술관을 1989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개관하였다. 그 후 1992년 10월 인천에 새롭게 미술관을 갖추고 전시하게 되었다.

미술관의 깔끔한 프랑스풍 외관이 먼저 시선을 끈다. 정성껏 다듬어진 정원수와 잔디 사이로 탐, 하마비, 귀여운 모습의 동자상 등이 놓여있어 작은 공원을 연상하게 한다. 이곳에서 첫 번째 전시물들을 보면서 마음을 정제한 후 미술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미술관 내에는 도자기류를 비롯하여 고서화, 불상 및 민속공예품 등 총 8천 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1층 전시실 유물들은 진열장안에 한 두어 점씩 차분히 전시되어 있는 다른 박물관의 전시방법과는 다르게 빼곡히 나열되어, 자유로운 분위기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유물들을 대할 수 있다. 여러 불상과 백의관음도, 지장보

살도 등의 불화, 불구류가 벽면을 따라 전시되어 있다. 그 중 조선 중기 목조보살 좌상은 평양에서 출토된 것으로 한 실향민을 통해 어렵게 입수한 보물급 문화재라고 한다. 또한 높이 4.7cm의 자그마한 금동여래 좌상은 머리 부분이 소실되었고 푸른 녹이 덮여 있어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1960년 서울 뚝섬부근에서 발견된 금동여래 좌상과 함께 우리나라 초기 불상양식을 연구하는데 매우 값진 자료 중 하나이다. 그 밖에도 이층장과 쌀 6가마를 한번에 담을 수 있는 켈 등의 고가구를 비롯하여 등걸이, 화려한 무늬의 능화판 등도 있다.

1층 입구엔 顧菴 李應魯, 雲甫 金基禔의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고암의 초기 竹史時代 작품과 운보의 청록산수화, 雨鄉 朴峽賢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한 칸에는 아프리카 조각품 전시가 마련되어 이채를 띤다. 케냐 키시부족 匠人의 돌조각과 함께 전시된 이 작품들은 100년에 걸쳐 흑단으로 만들어졌다. 신과 나무 사이에 태어난 민족이라는 탄생설화를 바탕으로,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표현했다. 대대로 이어져온 부족 전체가 커다란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 흡사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과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자연채광이 환하게 들어오는 2층 전시실에 오르면 秋史, 石坡, 謙齋, 毫生館, 玄齋, 吾園, 心田, 海岡, 以堂 등 많은 대가들의 서화류를 만나게 된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겸재 정선의 老松靈芝圖이다. 이는 祝壽를 비는 십장생도 계통의 작품으로, 우측 하단에 '乙亥秋日 謙齋八十歲作'이라는 년기(1755년)를 밝히고 있다. 소나무의 오랜 세월 지녀온 기풍을 잘 나타낸 수작으로 평가된다. 호생관 최북이 그린 또 다른 노송영지도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두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小山 巖 圭 이 만든 초대형 인장세트는 추사 김정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크고 작은 수십여 점 중 성모 마리아 상은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12세기 후반의 청자상감조화문 도판에서부터 19세기 청화백자십장생문호까지 고려·조선시대의 청자, 분청사기, 청화백자 등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운현궁과 황성신문사에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탁자세트 등이 그 당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이 보였다.

지하 1층은 다양한 토기, 도자기, 와당, 명기류 및 민예품 등이 보관장에 진열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여러 서화작품 중 海岡 金圭鎭의 대나무 그림 병풍은 곧은 절개와 힘찬 기상을 한껏 느끼게 해준다. 그 밖에 중국 및 동남아의 외국 공예품도 다수 전시하고 있다. 특히 서화류는 그 수가 많아 일일이 다 전시하지 못



山水圖·吾園 張承業·紙本水墨(197×58cm)

하고 전시실 한 면을 수장고처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 아쉬움을 더했다.

송암미술관을 둘러보면 누구나 방대한 유물의 양에 놀라게 된다. 이처럼 종류별 시대별로 유물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미술관을 만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회림 회장은 고향 開城에서 자랄 때 본 고려청자의 신비한 색상에 매료되어 고미술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6.25동란 중 우연히 겸재의 그림과 도자기를 수집품 1호로 구입하게 된다. 그 후 한국박물관회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계승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새겼고, 이는 미술관 건립으로 이어졌다. 관람 중 이회장의 사무실을 보게 될 기회가 있었다. 백자 몇 점과 소박한 사무실 집기 가운데 '空手來空手去'라는 친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 짧은 말 속에 유물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들어있는 듯하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하여 수십 년 동안 이룬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가까이서 대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끌어낸 과거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 돌의 미학 - 석굴암

조지훈 (1920 - 1968)

돌에도 피가 돈다. 나는 그것을 토함산 석굴암에서 분명히 보았다. 良工의 솜씨로 다듬어 낸 후 그 우람한 석상의 위용은 살아 있는 法悅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인공이 아니라 숨결과 핏줄이 통하는 신라의 이상적 인간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이 신라인의 꿈 속에 살아 있던 밝고 고요하고 위엄 있는 너그러운 모습에 숨결과 핏줄이 통하게 한 것은, 이 불상을 조성한 희대의 예술가의 드높은 호흡과 경주된 심혈이었다. 그의 마음 위에 빛이 되어 떠오른 理想人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거대한 花崗石塊를 붙안고, 밤낮을 헤아림 없이 쪼아 내고 깎아 낸 끝에 탄생된 이 불상은 벌써 인도인의 사상도 모습도 아닌 신라의 꿈과 솜씨였다.

석굴암의 중앙에 鎮座한 석가상은 내가 발견한 두 번째의 돌이다. 禪寺의 돌에서 나는 동양적 예지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지혜의 돌이었다. 그러나 석굴암의 돌은 나에게 한국적 정감의 계시를 주었다. 그것은 예술의 돌이었다. 선사의 돌은 자연 그대로의 돌이었으나, 석굴암의 돌은 인공이 자연을 精鍊하여 깎고 다듬어서 오히려 자연을 연장 확대한 돌이었다. 나는 거기서 예술미와 자연미의 渾融의 극치를 보았고, 인공으로 정련된 자연, 자연에 환원된 인공이 아니면 위대한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예술은 기술을 기초로 한다. 바탕에 있어서는 예술이나 기술이 다 'art' 다. 그러나 기술이 예술로 승화하려면 자연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人工을 디디고서 인공을 뛰어넘어야 한다. 몸에 밴 기술을 망각하고 일거수일투족이 無非法이 될 때 藝道가 성립되고, 조화와 神功이 체득된다는 말이다. 나는 석굴암에서 그것을 보았던 것이다. 돌에도 피가 돈다

는 것을 말이다. 나는 그 앞에서 찬탄과 황홀이 아니라 感泣하였다. 그것이 불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 예술의 한 고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몇 번이고 그 자비로운 입 모습과 수렴이 내민 젓가슴을 우러러보았고, 풍만한 볼기살과 넓적다리끼를 얼마나 어루만졌는지 모른다.

내가 석굴암을 처음 가던 날은 양력 4월 8일, 이미 복사꽃이 피고 버들이 푸른 철에 봄눈이 흩뿌리는 희한한 날씨였다. 눈 내리는 桃花佛國 — 그 길을 걸어가며, 나는 '碧藏雲外寺, 紅露雪邊春'의 즉흥 일구를 얻었다. 이 무렵은 내가 오대산에서 나와 조선어학회의 《큰 사전》 편찬을 돕고 있을 때여서, 뿌리 뽑히려는 민족 문화를 붙들고 늘어진 선배들을 모시고 있을 때라 슬프고 외로울 뿐 아니라, 그저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을 때였다. 이때에 나는 신앙인의 성지순례와도 같은 심경으로 경주를 찾았던 것이다.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신라는 서구의 희랍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피가 돌고 있는 석상에서 영원한 신라의 꿈과 힘을 보고 돌아왔다. ㉞

《돌의 미학》 중에서

이 글은 모두 세부분으로 되어 있다. 위에 실린 내용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자는 돌의 아름다움을 처음 맛본 곳으로 두 나라의 禪寺를 소개한다. 여기서 禪寺의 돌이란 일본 교토의 묘심사 정원에 있던 바위와 강원도 월정사에서 보았던 자연 그대로의 바위를 말한다.

## 다시 顧菴을 생각한다

하영남 | 회원

첫 만남에서 나는 자주 운명을 가늠해 본다. 끝없는 애정으로 이어질지, 속절없이 스러져 버릴지. 그러나 그 인연의 끈은 내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굵이굵이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모전을 겪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닫는다. 그건 신의 몫임. 불행히도 나는 냉담한 무신론자이다. 한눈에 영 놓치고 싶지 않을 대상을 만났을 때만 재빨리 제단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는다. 신에게 아부하는 유일한 순간이다. 이 인연이 그냥 스치지 않게 해 달라고.

고암과의 첫 만남은 수덕여관 앞 너럭바위에서였다. 90년 초, 수덕여관이 아직 온기를 가지고 있을 때였다. 정갈하게 창호지를 바른 문이며, 반질반질한 툇마루, 마당에 선명한 싸리비질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제사보다는 나에겐 젓밥인, 문자암각화는 저만치 방치되어 있었다. 왜 그렇게 두었느냐고 물어도 주인은 무심한 눈길뿐 대답이 없었다. 선연한 달빛 아래 나는 오랫동안 마당을 서성였다.

내 애절함이 신을 감동시킨 것일까? 덕수궁 미술관의 고암 탄생 100주년 기념전 소식을 들은 건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펼쳐진 신문 위로 셋노란 은행잎의 난무와 <群像>, 시창 앞 광장을 메웠던 시위대의 함성이 파노라마처럼 스쳤다. 순간 전율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고암을 만나러 간 날 이른 첫눈이 내렸다. 축포같이 쏟아진 함박눈, 나는 지금도 그것을 고암이 보낸 瑞雪이라고 생각한다. <군상> 속에 내재된 가없는 정열과 같

망을 보다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암의 초기작품을 보며 나는 작은 북소리를 환청으로 들었다. 역동적인 대나무가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일제시대에 감히 <3·1운동>을 그렸고, <외금강>에서 보인 웅혼한 터치 때문이다. 사실주의 회화에서 반추상화로 옮겨가면 북채에 힘이 더해진다. 전통적인 동양화의 굴레를 탈피한 과감한 생략이 어느 덧 뚜렷한 結氣를 형성한다. <醉夜>의 뻗친 수염에서, <動>의 필력에서 고암의 독창성이 엿보인다. 이때부터 그는 권력자보다는 낮은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 渡佛 이후의 플라주나 문자추상은 동양과 서양의 부드러운 악수이다. 한지에 담채라는 변함없는 도구로, 눈에 보이는 대상에서 내면세계를 繪畫化하는 방법을 차용한다.

<군상>을 보기 전 나는 잠시 찻집에 앉았다. 은행잎을 매달았던 메마른 가지 끝이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린다. 우우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 인천 송암미술관의 <牛圖>에서 본, 등뼈를 곧추세운 소떼가 거리를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있다. 바닥의 낙엽이 솟구치고, 여인의 치마가 뒤집힌다. 광풍을 동반한 이른 폭설을 막을 재주는 누구에게도 없다. 순식간에 보도는 데모 군중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어지럽다.

濃淡 섞인 몇가닥 선으로 이어진 커다란 나뭇가지. 가지 사이로 찍힌 작은 점들, 동물의 두상임을 나타낸다. 나는 황급히 뒷걸음질을 친다. 어디를 보아도 크거나 작

은 <군상> 뿐이다. 살아 꿈틀대는 인간의 무리이다. 얽전히 사색에 잠긴 사람은 없다. 팔은 활짝 열려 있고, 다리는 축구선수처럼 알이 뻗었다. 무질서 해 보이는 화폭으로부터 눈을 거둬들인다. 멀리 있어서 누구보다 선명했을 고암의 고국에 대한 애정과 염원을 마음으로 읽어간다.


굽기가 다른 선들이 먼저 가슴으로 뻗어 오른다. 취기가 도는 듯 온몸의 실핏줄이 뜨거워진다. 단 한번의 터치로 표현한 다양한 감성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원초적인 몸의 항변이다. 그들의 팽팽한 긴장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울하고 안타깝다. 그러다가 불끈 울분이 치민다. 나는 잠시 진저리를 친다. 무채색의 두상은 또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졌는지. 방울방울 떨어져 퍼진 점들은 고암의 외침이고 내 눈물이다. 어느 새 몸이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 <군상>은 그 시절 우리 사회의 지표이기도 하고 내 의식의 행로이기도 하다.

평창동 이응노 미술관에는 고암의 파리 작업실이 재현되어 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대변해 주는 소품들, 감옥에서 밥풀과 한지로 만든 <군상>, 문자 목판 등이다. 전시실에는 생전의 모습을 담은 커다란 사진 한 장이 있다. 그렇게 냉대를 받고도 조국을 향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토한 분이래기엔 믿어지지 않게 평온하고 승고한 표정이다. 역사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 유지가 오히려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 것일까? 침잠하는 내면의 소리를 조용한 붓질로 풀어낸 것이리라.

밤이 깊었다. / 대초원의 촛불인 모닥불이 켜졌다. // 몽골의 악사는 악기를 꺼안고 말을 타듯 연주를 시작한다. / 장대한 기골의 악사가 연주하는 섬세한 음율, 장대함과 섬세함 사이에서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소리, 모닥불 저 너머로 전생의 기억들이 바람처럼 달려가고, 연애는 말발굽처럼 아프게 온다. // 내 생의 첫 휴가를 나는 몽골로 왔다. 폭죽처럼 화안하게 별빛을 매달고 있는 하늘 / 전생에서부터 나를 따라오던 시간이 지금 여기에 와서 멈추어 있다.

— 박정대 <馬頭琴 켜는 밤>

그를 만나고 돌아온 날, 울음 같은 선율이 귓전에 서성거렸다. 詩 속의 악사가 고암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의 초대를 받은 행복한 여행자이다. 광활한 몽골초원에서 그의 馬頭琴 소리를 들으며 나는 모닥불처럼 빨갱게 달아올랐다. 



## 다시 찾은 線

李文烈의 소설에 '들소'라는 중편이 있다. 작가가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보고난 감흥을 신석기시대로 바꾸어 쓴 작품이다. '산나리' '뱀눈' '위대한 어머니' 등과 같은 등장인물의 인명부터 친원시적(?)이며, 축제나 성인식이니 하는 행사장의 표현들이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석기 강좌에서 이 책을 사서 몇 쪽을 읽게끔 한 뒤 그 분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 만년에 가까운 신석기시대의 상황을 한 두 시간 만에 이해시키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어, 내심 작가에게 고마움과 함께 소설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천재성에 감복하고 있기도 하다. 사냥이나 전쟁에서 부상당한 주인공은 동굴이라는 격리된 공간에서 축이나 창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소위 특정한 장인집단의 일원으로, 또한 그 집단의 주변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쯤

에서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소주제를 밝혀야겠다. 신석기시대에도 계급의 분화가 있었는가?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를 흔히 빗살무늬토기라고 한다. 혹자는 용어가 어렵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빗의 살 같은 도구로 무늬를 넣은 토기를 말하니, 알고 보면 이보다 더 쉬운 고고학 용어도 없을 듯하다. 깨어져 잔편만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잘 만들어진 빗살무늬토기는 팔등신처럼 늘씬한 자태를 자랑한다. 거친 흙이 묻어나는 조각에서는 도자기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촉감보다는 훨씬 온기가 와 닿는다. 올망졸망 귀엽고 예쁘게 놓여진 무늬는 우리의 심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古墳土器나 磁器에서 名品으로 치는 것 중에는 어떤 物像을 본뜬 것이 많은 것에 비하면, 지극히 단순하고 순수한 모양과 선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빗살무늬토기의 무늬 넣기 실험

단순한 선과 점의 반복.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표현 양식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염원을 나타낸 것이리라. 그 문양들을 관찰하면서 또 그것을 만들어 보면 놀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아무리 똑같이 무늬를 넣어 보려고 해도 선이 비뚤어지고 전체 맵시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자신이 나름대로는 손놀림이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 의문은 더욱 컸다. 빗살무늬토기인들의 사회는 아직 계급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로 이야기되고 있는 터인데, 그렇다면 이것만 만들고 施文하는 전문적



인 장인 집단이 있었다는 말인가? '들소'에 나오는 상황처럼...

쉽게 흘러버릴 수는 없는 의문이었지만 십 년이 지나도록 그 의문은 풀리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답은 간단하였다. 어느 날 다 깨어진 빗살무늬토기 조각의 무늬와 무늬 사이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선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윤곽선이나 가장자리 선을 그어 전체의 범위와 표현할 문양을 디자인 한 다음 시문한 것이다. 그 후 물손질로 整面하면서 대부분의 시문구획선은 지워지는데 수 백 점 중의 한 점에는 그것이 덜 지워지고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덜 지워진 선이었으며 '다시 찾은 선'이었다.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빗살무늬토기를 관찰하면서 감히 논어를 인용하리요만, 그 순간만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를 뇌어도 좋았다. 숨어 있는 선, 다시 찾은 그 희미한 선으로 인하여 빗살무늬토기가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인집단의 유무가 물론 신석기시대의 계급분화를 가늠하기에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지만, 십 년이나 넘게 가슴 속에 남아 있던 의문 하나를 풀어 준 '다시 찾은 선'이었다.

오늘이 박물관에 들어온 지 꼭 이십 년 되는 날이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이니 짧다고만은 할 수 없을 진대, 돌아보니 뚜렷이 한 일이 없다. 처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지방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양모 선생이 도자문화 강좌를 하였다. 개인 소장품의 '靑磁陽刻竹節文長頸瓶'을 설명하면서 '대나무 가지가 두 줄로 올라오다가 목에서부터는 한 줄로 바뀌는 것을 십 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당신이 십 년 만에 안 것을 단 번에 알려주니 오늘 이 강의를 그만 하여도 된다고 하셨다. 그 때는 그 희열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 매일 보고 언제나 생각하여도 그 간단한 현상 하나는 때가 되어야 눈에 보인다. 아니 그것은 마음에 보이는 것이다. 유물관찰의 중요성을 알게 해



다시 찾은 선

준 일이었다. 십 년이 더 지나고 그 일을 나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며칠간 잠을 자지 않아도 기뻐다.

몇 년 전 강우방 선생은 빗살무늬토기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神은 曲線을 創造하였고 人間은 直線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직선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갈파하였다. 그렇다. 신은 과연 곡선을 창조하였다. 산과 강이 그러하고 인체가 또한 그러하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그릇인 토기. 거기에 인간은 맨 먼저 선을 그음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바램과 열정을 남겼다. 바로 빗살무늬이다. 그것은 직선에서 비롯되어 그 직선이 모여서 集線이 되고 변하여 곡선이 되었다. 신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산허리를 잘라 어떻게 하든 쪽 뺀 길을 낸다. 구불구불한 물줄기를 막고 메워서 댐을 만들고 성냥갑 같은 집을 짓는다. 자연의 미를 훼손하다 못해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빗살무늬토기가 디자인되었음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서 기쁜 일이었다. 신석기 사회의 계급분화 여부를 확대해석해 본 것은 무리라고 치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리한 전시와 교육, 우리 세대만을 위한 개발과 건설에만 몰입하고 있지는 않는 지 뒤 돌아 볼 시간이다. 빗살무늬토기에서 '다시 찾은 선'을 계기로 박물관과 우리 사회를 생각하여 본다. ㄹ

2005. 2. 1 雲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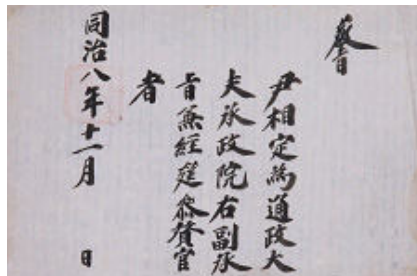
# 윤여덕 선생 기증 고문서

박준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2003년 2월 坡平 尹氏 팔송파의 尹汝德 선생은 집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고문서 67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필자는 기증 당시 현지 조사를 못하였기 때문에 소장자의 경위, 분류 상태, 추가적인 문헌의 不在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증한 67점의 고문서는 대부분 敎諭이며, 그 수량과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은 조선 후기 별군직을 지낸 중앙의 핵심 무인 집안으로서 그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증 고문서는 모두 19세기 중반 이후의 것들이다. 따라서 尹相定과 尹始炳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고문서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간략한 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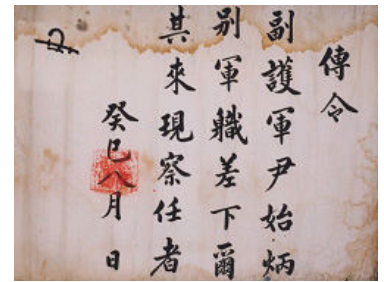
→ 형진(衡鎭) → 자회(滋晦) → 상정(相定; 1827~1875) → 시병(始炳; 1859~1932) → 태중(泰重) → 석만(錫萬) → 여덕(汝德)



1869년 11월 윤상정을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족보에 의하면 윤형진은 1786년 進士試에 入格하였으며, 景慕宮 숙의 벼슬을 지낸다. 물론 이번 기증 고문서 중에는 이와

관련된 것이 없어 아쉽다. 윤상정은 1852년 武科에 급제하였고, 그 후 무관으로서 요직을 거치게 된다. 1854년에 效力副尉 (정9품) 宣傳官에 임명되었으며, 불과 2년 후인 1856년에는 宣略將軍 (중4품) 兼 선전관이 된다. 1860년에는 禦侮將軍으로 임명되며, 1864년 정월에는 武班의 최고 품계인 折衝將軍까지 올라간다. 절충장군에 올라서도 계속 선전관의 직임을 수행했고, 1869년 11월 堂上官인 通政大夫 承政院 右副承旨에 제수되어 1871년까지 승지의 직임을 담당했다. 1875년 5월 27일 마지막으로 충청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10일에 卒하였다.



국왕이 윤시병에게 내린 별군직 임명 전령이다. 문서 왼쪽 상단에는 고종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부호군 윤시병을 별군직에 임명하노니, 너는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라. 계사년 8월 고종 御押"

윤상정의 아들 윤시병은 본래 양자로 들어왔다. 기증 고문서 중에는 入養과 관련된 문서는 보이지 않는다. 윤시병은 1878년 무과에 급제한다. 그 역시 선전관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888년 절충장군 內禁衛將에 임명된다. 윤시병에 관련한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98년 그에게 하달된 高宗의 傳令이다. 전령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공문서이다. 그러나 일부 전령은 국왕의 친위조직인 別軍職 임명에만

사용되는 지극히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문서였다.

별군직은 1636년 병자호란으로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鳳林大君(孝宗)을 모신 8명의 군관을 생각하며, 효종이 즉위 초에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 조직이었다. 이들 별군직은 특별히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보통 10~20인을 유지), 국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 궁궐내에서 숙직을 하거나 임금을 호위하였다. 또한 다른 무인들과 달리 감찰수행의 특별한 임무도 부여받았다. 이처럼 중요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별군직이기에 이들의 임명장은 국왕이 직접 하사했다. 현재 전하고 있는 별군직 관련 전령은 많지 않아서 그만큼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별군직에 임명된 윤시병은 무반으로서 고종의 최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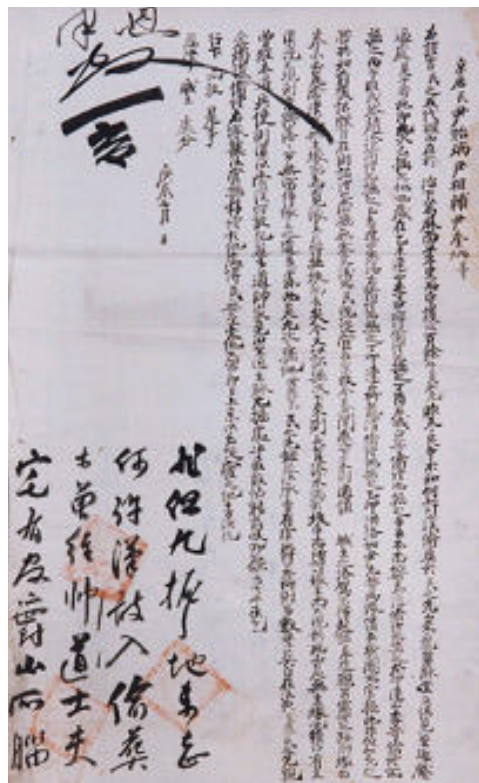
윤여덕 선생이 기증한 고문서 중에는 소송 문서도 상당수 있다. 모두 뒷자리 싸움[山訟]에 관련된 것이다.

그 중에는 윤시병의 5대조 산에 몰래 피를 쓴 사람을 찾아 속히 이장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청원하는 1880년에 작성된 문서도 있다. 이 선영은 密葬으로 인해 발각되어 移葬케한 것이 9번이나 될 정도로 유명한 명당자리였던 것 같다. 당시에는 밀장한 피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장할 수 없었기에 밀장자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했다. 그러나 끝내 밀장자가 나타나지 않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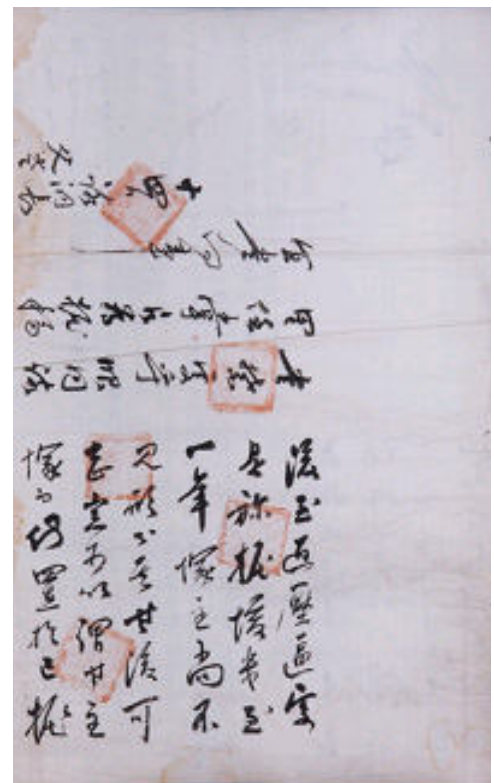
은진현감은 그 마을의 洞長과 父老들이 함께 즉시 무덤을 파서 옮기라는 명령[眼同該里任掌卽爲掘移]을 내렸다. 그와 동시에 해당 마을로 전령을 내려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하달하였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임에 틀림없다.

윤여덕 선생이 기증한 67점의 고문서는 대강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정과 윤시병의 관직 생활, 별군직에 임명된 윤시병, 노성 선산의 뒷자리 싸움이 그것이다. 기증 고문서는 고문서학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박물관 소장 문헌류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조상 대대로 소중하게 간직해온 문서를 선뜻 기증한 윤여덕 선생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2]



윤시병이 은진현에 올린 소장이다. 왼쪽 아래 부분은 은진현감의 판결문이다.



윤시병이 올린 소장의 뒷면이다. 은진현감의 판결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정림사탑이 준 여유

강 선 영 | 회 원



백제금동대향로 국보 제287호

딸아이가 6살이 되던 해인가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틈만 나면 간단한 집을 싸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로 인터넷을 뒤지고 지도를 보면서..... 그 중에 답사 예정지인 부여도 빠지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정림사탑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한 장. 기억이 가물 가물 하다. 박물관특설강좌에 다니며 여러 강의를 듣고 보았으니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답사를 떠났다.

3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궁남지를 돌아본 후에 점심을 먹고 부여박물관에서 강의를 들었다. 중고등학교 역사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백제금동대향로는 문외한인 내가 보아도 아주 아름다웠다. 능산리 유적지에서 1993년 발굴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향로 중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또한 전체높이 64cm, 최대지름 19cm로 유례가 없는 대작이다. 청동을 주조한 후 몸체 겉면에 금을 도금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백제금동대향로이다.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현존하는 동아시아 향로 중 우수한 걸작품이며,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문화의 최고 예술품이다. 발굴 당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형태였으며 봉황, 뚜껑, 몸체, 받침으로 구분된다. 각 부분마다 빼어난 조형적 구성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향로 전체에 정교하게 19명의 인물, 84마리의 동물, 5곳의 산봉우리가 조각되어 있다. 그 곳에 향을 피우면 봉래산과 봉황의 가슴을 통해 나오는 12개의 연기 구멍들은 독창적 예술의 표현이다. 향로를 만난 것은 답사에서의 뜻하지 않은 수확이고 행운이었다. 발견한 그 순간의 감동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하면서 뭔가 뿌듯한 기분은 민족적 자긍심이 아닐까.

기분 좋게 부여박물관을 나선 후 이번 답사의 개인적 목적인 정림사지 석탑을 만나러갔다. 절과 사탑이 가지고 있는 정감을 좋아하고, 그래서 자주 가는 여행지이기도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간다는 점이 특별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 탑을 보면서 머릿속에는 백

제의 모습을 그려보고 도공의 땀과 열정도 떠올리고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염원했을까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그래서인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상세한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여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정림사지는 백제시대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다만 발굴 중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기와 조각에 정림사라는 명칭이 있어 그렇게 불리울 뿐이다. 그러나 탑은 분명 백제인이 만든 것이고, 왕궁이 있던 곳에 세워진 사찰이니 상당한 규모였을 이 절의 백제 이름은 무엇일까? 정림사지가 있던 곳은 부소산과 왕실 연못이었던 궁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상으로 보아 상당히 중요한 사찰이었을텐데 지금은 탑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다. 뒤쪽에 있는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고려 때 만들어진 석불이 안치되어 있다. 머리 부분은 훗날 올려진 것인데 좌대의 연꽃문양이 석불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정림사지석탑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백제인의 건축기술이 상당했음은 여러 기록에서 나타난다. 경주의 분황사 모전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비교해보면 그 기술적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뛰어난 기술자였던 백제인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숨가쁘게 변하고 늘 새로운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진득함과 진지함이 그리워지는 요즈음 정림사탑은 한숨 돌리고 갈 여유를 나에게 주었다. 다음에 다시 가족과 함께 이 곳을 찾는 기회가 있다면

기념사진 한 장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는 한낮이 아닌 여명이 밝아올 무렵 이른 새벽에 정림사탑을 다시 만나고 부여를 돌아 보리라. 



정림사지 5층석탑  
국보 제9호 높이 8.33m

## 아이와 함께하는 박물관

박 향 희 | 회원

아이와 함께 박물관에 갈 때는 항상 가슴이 설레인다. 버스에서 1시간이 넘도록 지루해 하다가도 박물관 앞에 서면 즐거워진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유물이 나에게 감동을 줄까?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역사지식으로 유물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교육은 역사적 사건의 나열일 뿐 유물에 대한 지식전달은 부족하다. 나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도우미가 되고 싶어 여러 강좌를 듣고 많은 책을 읽는다. 그런데도 박물관의 유물이해가 어려운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까?

이번 박물관특설강좌를 들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아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에서의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는 사실들과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배운 대로 습득하고 기억하는 아이에게 박물관이 어렵고 근엄한 대상으로 남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나오면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게 아이들을 몰고 지나간다. 이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유물과 이야기할 시간을 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수업이다. 아이들의 무한한 역량은 한꺼번에 몰아서 전시실을 후다닥 지나가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관심을 집중시켜 단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가슴에 넣게 된다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물에 대한 호기심도 가질텐데. 학교 선생님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 너무 큰 과제이다. 이는 박물관과 부모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었고


누가 만들었을까? 무늬와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이가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관찰하고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과학관이나 숲 속 체험 등에서는 만지는 것과 직접 보는 것들이 많다. 때문에 아이에게 과학관을 가자고 하면 무척 즐거워하며 기다린다. 박물관에서도 아이를 위한 유물 돌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어린이 박물관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성인을 위한 도우미가 필요하듯 아이들만을 위한 안내자가 있다면 좋겠다. 부모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좀더 체계적이고 사실적으로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참여 수업이 있으면 역사와 유물을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의 박물관 이해도 좀더 높였으면 한다. 선생님들의 이해와 무관심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과 새로운 자료의 원활한 교류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박물관에 와서 한두 전시실만을 본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관찰·설명하고 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는데 1~2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 시간 동안은 지루해하지도 어려워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단 한점의 유물이라도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아이와 한 달 전 회화실만을 보고 갈 때였다. 거기에 모여서 무언가 열심히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끊임없는 질문에 그들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회화실을 살살이 보고 있었다. 저런 선생님이 좀더 많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나 또한 많은 준비를 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 하는 것도 박물관의 역할이며 과제일 것이다. 도우미를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느끼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박물관. 지금껏 이러한 일을 해온 국립중앙박물관이 앞으로도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한다.

내게 즐겁고 두근거리는 곳이듯 아이들에게도 박물관이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유물이 살아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삶과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 6~7세기 동아시아 조각양식의 전파와 공유

-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곽 등 석 (국립청주박물관장)

## 머 리 말

1.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형식적 특징
  2.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系譜
  3. 法隆寺 獻納寶物 143號 金銅一光三尊佛의 국적문제
  4.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과 백제조각
- 맺 음 말

## 머 리 말

한국 불교조각의 창세기이면서 한국적인 조형감각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던 삼국시대 6세기 조각은 金銅으로 주물된 소형의 一光三尊佛에 의해 주도되었다. 글자 그대로 하나의 대형 광배를 배경으로 三尊을 배치한 一光三尊佛의 祖型은 물론 중국의 北魏 조각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소형의 금동불로서 하나의 定型을 이루고 또 크게 유행하게 되는 것은 한반도의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걸친 시기였으며, 그 영향은 7세기 전반의 일본 飛鳥彫刻에서도 감지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이 갖는 구조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을 통해서 그 原型을 복원한 뒤, 이를 중국과 일본의 유례와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6~7세기 동아시아 불교조각의 전개과정에 끼친 媒介的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1.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형식적 특징

삼국시대의 금동제 일광삼존불들은 한결같이 높이 20cm 미만의 소형이며, 제작시기도 가장 이른 시기의

癸未銘(563) 金銅三尊佛(潤松美術館)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6세기 후반에 집중되어 있다. 제작기법면에서는 蓮瓣形 광배와 본존불을 각각 따로 주물한 뒤 서로 결합한 방식(本尊別鑄結合式)과 전체를 한 몸으로 주물한 방식(一鑄式)이 많다. 전자는 蓮華座까지 별도로 주물한 뒤 본존불 발 아래의 圓錐形 蓮實部와 서로 결합하며, 蓮瓣形 광배는 본존의 등 중앙에 달린 축에 끼워 빗장 걸듯이 결합한다. 반면 후자는 전체를 한 몸으로 주물했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크기가 작고 조각도 단순화되어 있다.

이들 두 형식의 금동일광삼존불은 蓮瓣形 광배만 남아 있다면 누구나 식별이 가능한 반면, 蓮瓣形 광배와 협시와 본존을 모두 따로 주물하여 서로 결합한 형식일 경우 삼존불 각각이 광배면에서 분리된다면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원형의 금동일광삼존불(三尊別鑄結合式)은 한 점도 남아 있지 않지만,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이 백제 불상일 가능성이 큰 일본 法隆寺獻納寶物 143호 金銅三尊佛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존불 뒷면의 광배용 축은 어깨와 무릎 높이의 뒷면 가운데에 상하로 두 개가 달리며, 신체는 蓮實部까지 한 몸으로 주조되고, 양 발 사이가 뚫린 경우가 많다. 협시보살은 신체와 대좌까지 한 몸으로 주조되지만, 조각은 앞면에만 베풀고 광배면과 맞닿는 뒷면은 대좌까지 모두 세로로 잘라낸 듯 평면적이다. 특히 협시보살상의 구조에서 주목되는 점은 광배용 축의 위치로, 앞에서 볼 때 광배용 축은 중앙에서 벗어나 본존쪽으로 치우쳐 달린다. 이것은 삼국시대의 정형화된 金銅一光三尊佛에서는 두 협시보살의 신체 바깥선이 연판형 광배 바깥으로 돌출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身光帶와 테두리 중앙에 뚫린 결합용 구멍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본존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삼국시대의 단독 금동불 가운데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갖춘 것은, 瑞山 普願寺址출토 金銅如來立像(本尊, 國立扶餘博物館), 扶餘 佳塔里출토 金銅如來立像(本尊, 國立扶餘博物館), 金銅菩薩立像(本尊, 國立中央博物館), 金銅菩薩立像(本尊, 國立中央博物館 東垣寄贈品), 金銅菩薩立像(左脇侍, 日本 船形山神社), 扶餘 軍守里출토 金銅菩薩立像(右脇侍, 國立扶餘博物館), 金銅菩薩立像(右脇侍, 湖林博物館), 扶餘 新里출토 金銅菩薩立像(左脇侍, 國立扶餘博物館) 등, 의외로 많은 유례를 발견하게 된다.

## 2.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의 系譜

삼국시대의 金銅一光三尊佛들은 본존 여래상 좌우에 보살이 협시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지만, 傳春川출토 金銅菩薩三尊佛(湖巖美術館)처럼 보살이 본존인 경우도 있다. 여래 삼존상에서는 본존이 立像인 경우가 많지만 小

倉蒐集品 金銅三尊佛(東京國立博物館)과 建興5年銘(596)金銅光背의 예에 비추어 좌상 형식도 일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대좌가 결실되었지만 상현좌의 흔적을 남기고 있고, 후자는 본존의 頭部 중심부가 위치하는 頭光 內區의 蓮瓣 중심에서 연판형 광배 하단까지의 높이가 脇侍의 높이와 거의 비슷하므로 본존이 좌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대부분은 양식적으로 고구려 또는 백제작으로 분류되며 아직 신라에서는 확실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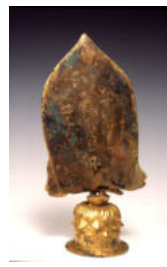
大光背는 蓮瓣形이고 본존불 하단에 蓮花座를 배치하여 삼존불 전체를 받친다. 蓮瓣形 광배에는 중앙에 본존불의 頭光과 身光띠를 새기고, 하단 좌우에 협시보살을 부조로 배치하며, 나머지 여백에는 化佛과 火焰文을 표현한다. 본존불의 頭光은 중앙에 圓板을 포개 듯한 몇 겹의 동심원 속에 연꽃잎을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半 팔메트形의 唐草文을 둘러며, 頭光띠의 頂上에는 연꽃 위에 안치된 寶珠를 배치한다. 身光帶 내부 좌우에도 넝쿨 모양의 줄기가 달린 팔메트를 한 송이씩 표현한다. 蓮瓣形 광배의 나머지 여백에는 역동적인 火焰문과 蓮花化生을 상징하는 化佛을 표현하는데, 화불은 본존의 頭光띠 바깥

에 3구, 5구, 또는 7구씩 홀수로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기본 형식에 甲寅銘金銅光背(東京國立博物館)처럼 蓮瓣形 光背의 가장자리를 따라 奏樂天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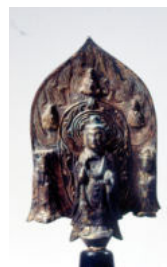
이러한 광배 意匠은 물론 중국의 北魏時代 그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이처럼 금동불로서 定型化된 형식은 중국에서는 찾기 어렵다. 일례로, 太和銘金銅三尊佛(大阪 藤田美術館)의 경우 전체적인 구성은 삼국시대



癸未銘 金銅三尊佛, 삼국시대 563년, 像高 17.5cm, 서울 湖松美術館(앞, 뒷면)



金銅三尊佛立像, 山東省 諸城縣 林家村出土, 東魏 6세기 중엽, 높이 17.0cm 諸城縣博物館



辛卯銘 金銅三尊佛 황해도 곡산 출토 고구려 571년 光背高 15.5cm 湖巖美術館

의 金銅一光三尊佛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蓮瓣形 광배의 형식은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에서 정형화된 化佛이나 植物文 또는 寶珠 등은 볼 수 없고 대신 폭이 넓은 테두리로 표현된 단순한 형식의 頭·身光帶와 이른바 龍文系의 火焰文으로 구성되었을 뿐이다.

특히 삼존불의 배치방법과 구도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太和銘 金銅佛의 경우 광배면 하단에 배치된 협시보살은 본존이나 蓮瓣形 광배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또 蓮瓣形 광배의 폭이 넓기 때문에 본존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이러한 구도 때문에 협시들은 본존불에 비해 매우 위축된 모습이다.

반면 삼국시대 金銅一光三尊佛에서는 脇侍의 크기와 구성이 蓮瓣形 광배의 높이나 좌우폭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좌우 협시들의 신체 바깥선을 蓮瓣形 광배면 바깥으로 돌출시킨 것으로, 따라서 뒷면에서 보면 광배의 좌우 하단이 마치 날개처럼 꺾여져 있다. 이것은 본존 좌우의 제한된 광배면에, 그것도 본존의 身光帶를 가리지 않게 협시들을 배치했을 경우 생기는 구도상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형적인 배려일 것이다.


이러한 조형적인 배려는 중국의 금동제 삼존불에서도 보이지만, 天保2年銘(551) 金銅三尊佛에서 보듯이, 중국의 그것은 협시들이 蓮瓣形 광배면과 분리된 채 대좌 하단에서 피어오른 연꽃줄기 위해 배치됨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는 一光三尊佛로 보기 어렵다. 또 중국에서는 연화 대좌를 갖춘 금동불(삼존불은 물론 단독불까지)을 다시 별도의 四脚받침 위해 안치하여 祭壇像(shrine)과 비슷한 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삼국시대 일광삼존불에는 그 유례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현재 중국의 金銅一光三尊佛 가운데 삼국시대의 그것과 가장 유사한 예는 오직 山東지방에서만 발견된다. 1978년 5월 중국 山東省 諸城縣 林家村에서 출토된 2구의 금동삼존불 가운데 東魏樣式을 띠고 있는 如來三尊佛은 일광삼존불의 구조나 조각 양식과 형식면에서

한반도의 그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本尊別鑄結合式으로 제작된 이 삼존불은 본존의 신체와 대좌를 각각 따로 주물한 뒤 축 역할을 하는 발 아래의 蓮實部를 통해 끼워 결합한 형식이 한반도의 그것과 같다. 본존불은 높고 둥근 球形의 肉髻와 살이 찌고 커진 얼굴, 가슴 부분의 두툽한 U형의 옷깃과 복부의 층단식 옷주름, 銳角과 입체감이 사라지고 좌우 뺨침이 상당히 둔화된 大衣의 끝자락 처리, 그리고 수직으로 올리고 내린 두 손의 형태 등, 조각 양식과 형식은 특히 辛卯銘(571) 金銅三尊佛(湖巖美術館)과 매우 흡사하다. 합장한 양 협시는 정교한 맛은 없지만 강한 動勢가 天衣를 따라 흐르고 있는데, 머리 위의 보관에는 고구려 양식을 반영한 일본 船形山神社 金銅菩薩立像이나 國立中央博物館藏 金銅菩薩立像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三花飾이 기세 좋게 뻗어 있다.

가장자리를 따라 테두리를 돌리고 그 속에 變化生의 3化佛과 섬세한 불꽃 무늬를 새긴 蓮瓣形 광배의 형식 역시 辛卯銘 金銅三尊佛이나 建興銘 金銅光背와 매우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頭光과 身光 내부에 당초무늬를 생략하고 몇 겹의 띠를 중복시켰으며, 頭光 정상에 寶珠도 생략하였다는 점이다. 대좌의 기본 구조는 延嘉7年銘(539) 金銅如來立像과 같고, 두 겹으로 겹친 연꽃잎 하단에 間葉을 배치한 형식과 끝을 예리하게 돌출시킨 연꽃잎의 형태는 癸未銘 金銅三尊佛과 비슷하다.

한국의 고대 조각사에서 중국 조각이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그러나 이처럼 한반도의 그것과 양식과 형식이 동일한 金銅一光三尊佛이 중국 대륙 중에서도 유독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山東반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불교 문화의 수용과 전파면에서 한국은 一方的인 관계에만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처럼 삼국시대의 금동제 일광삼존불은 한국적인 창안은 아니지만 중국의 그것을 받아들여 이를 한국적인 감각으로 定型化한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의 요지입니다.

#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어지기까지

함 순 섭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은 경복궁 복원을 위해 옛 조선총독부 청사를 허물기로 결정한 1993년부터 준비되었다. ‘문민정부’ 시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이 계획은 옛 청사와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 그 상세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경복궁은 1894년 일제에 의해 무력으로 침탈당한 후, 1912년 관리권마저 조선총독부에 빼앗기고 만다. 그들은 즉시 경복궁 내부에 청사 신축 계획을 세워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광화문과 근정문 사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기 시작하여, 소위 ‘施政 5年 紀念 朝鮮物産共進會’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근정전과 경회루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물을 철거한다. 1915년 박람회 형식으로 치른 공진회 1호관은 근정전을 완전히 가리는 가설건물이었다. 일제에 의해 팔다리가 잘린 경복궁, 그 심장부마저 막아버린 형상이었다.

그리고 1호관 부지에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 계획을 세웠다. 즉 일제는 조선왕

조의 상징공간인 경복궁을 물리적으로 해체한 것도 모자라 그곳에서 제국주의 선전을 위한 박람회를 열었다. 또한 궁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굴욕감을 주었고, 그 곳에 일제의 상징물을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조선총독부 청사는 1916년에 착공하여 1926년 준공되었다. 이 즈음 그나마 옛 위상을 엿볼 수 있었던 광화문마저도 원래 위치에서 사라져버렸다.

해방과 더불어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총독부청사에 ‘Capital Hall’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이를 정인보 선생님이 ‘중앙청’이라고 번역했다. ‘중앙청’에서는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개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과 더불어 초대 정부가 들어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한국전쟁으로 막대한 파손을 입었다. 이를 3공화국 군사정부가 복구하여 1962년부터 20년간 정부청사로 다시 사용하였다.

해방 이후 옛 청사는 지속적으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으나, 그 때마다 활용 논리가 철거 논리에 앞섰다.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을 두루 거친 청사가 최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철거된 경위는 자못 아이러니하다. 박물관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1955년 존폐논쟁 때에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5공화국 군사정부에 의해서이다. 정부종합청사 조정계획과 연계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앙청’으로 이전하는 것이 먼저 검토되고 1982년 청사 조정계획이 발표되었다. 1983년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개축기공식이 있었고, 1986년 8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완공식이 개최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역사의 한이 서린 치욕의 건물이지만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사를 개보수한지 7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건물의 상징성 때문에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에 내맡겨졌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 돌출된 이전계획은 박물관 본연의 의지와 관계없이 총독부 청사 철거라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 명분의 당위성은 경복궁 복원계획으로 채워져 있었다.

청사의 건립과 존폐논란을 되새겨 보면 일정 부분에서 상징조작이 지속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경복궁에 지어 치욕적인 지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3공화국 군사정부는 파손되어 방치된 건물을 복구하여 핵심 정부청

사로 다시 사용했다. 이는 모두 정권의 권위를 이전의 상징체계에서 찾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쿠데타와 ‘서울의 봄’을 짓누르며 ‘중앙청’에 탱크를 배치했던 5공화국 군사정부는 대통령 지시라는 형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청’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것 또한 권위의 공간이자 금단의 영역이었던 ‘중앙청’을 박물관이라는 형태로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군사정부의 이미지를 유화시키려 한 상징적인 작업이었다. 비록 일제강점기나 군사정부시기와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문민정부’의 청사 철거논란 역시 새로운 상징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철거와 새 박물관 건립계획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앞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물론 대의적으로 경복궁 복원이 목표였지만, 정권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된 새 박물관 계획의 초기 추진 과정은 다음 세대가 재평가 할 것이라고 본다.

경복궁 복원과 총독부 청사 철거의 슬한 논란 속에 1993년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계획안이 마련되었고 건립부지로 ‘용산가족공원’이 결정되었다. 이 일대는 1894년부터 일제가 동학농민전쟁의 탄압과 청일전쟁을 위해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이고 해방이후에는 미군기지였다. 1992년 남쪽의 골프장이 우리에게 반환되어 공원으로 탈바꿈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기지 철수를 전제로 이곳이 결정된 것이다. 1995년 국제설계경기에서 정립건축(대표설계자 박승홍)의 작품이 새 박물관 당선작으로 뽑혔다. 1997년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현재는 진입로 주변의 조경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방 60주년인 올해 10월에 개관된다. 앞으로 미군기지가 완전히 철수하면 부지 북쪽에도 다양한 박물관들이 들어 설 예정이다. 공원과 박물관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이 서울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되었다. 드디어 더부살이가 아닌 박물관 전용의 단독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관 전시하는 근대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이 함께 가꾸고 참여하는 박물관’을 추구한다. 대폭 확충된 사회교육, 공연, 편의 시설 등이 이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대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일만 남은 것이다. 



공진회



조선총독부청사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 會 長 | 俞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哂玉  
 千信一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평생·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다기 상임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다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朴容允 한국박물관회 이사  
 李 鶴 우학문화재단 이사장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산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버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 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 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실측, 토기편 맞추,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영혼의 여정 특별전도록, 서역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매듭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 이 책을 만들면서

봄은  
늘 바라보는 앞으로 오지 않고  
어느새 뒤로 와 살짝 건드리는  
그런 사랑같은 것. (진)

그래도  
다시 보아야  
하는지 (水)

하나... 둘... 셋... 넷.  
이제 네점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함께 들어주는 이 있음에  
마음은 언제나 연두빛 봄인가 봄니다. (愛)

연적을 보러가는 날이면  
늘 마음이 설레었다.  
그것을 손안에 감싸면  
서늘함이 점차 온기로 다가온다.  
수줍은 새봄처럼... (정)

따사로운 햇살이 좋은 계절. 박물관 뜰은  
아직 겨울입니다. 아쉬움으로... (리)

마른가지에 맺힌 작은 꽃봉우리에서  
아련한 빛깔과  
향그러운 냄새를 맡습니다.  
봄은 상상만으로 즐거운 잔치입니다. (河)

북한산의 잔설은  
가지지 않아도  
따사로운 봄별은  
기다려집니다 (선)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9호

발행일 | 2005년 3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유상욱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서미선 정미희 정혜리 조애경 진수옥 하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57 옛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내  
전화 : (02) 730-7092, 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seummember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한국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 ■ 표지그림 이야기

복숭아 연적(높이 9.6cm, 개인 소장)은 조선시대 후기 어느 사랑방에서 목향에 젖어 있던 것으로, 단아하고 소담한 모양과 자연스런 색이 뛰어난 미감을 표현한다. 두꺼비 연적(높이 4.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은 물과의 연관성 때문에 널리 만들어진 형태중 하나다. 역시 천연스런 모습으로 친근한 아름다움과 함께 금방이라도 꿈틀거릴 것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57 옛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내  
Sejong-no 1-57, Ch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 (02) 730-7092 · 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seummembers.org